



통권24호

후원회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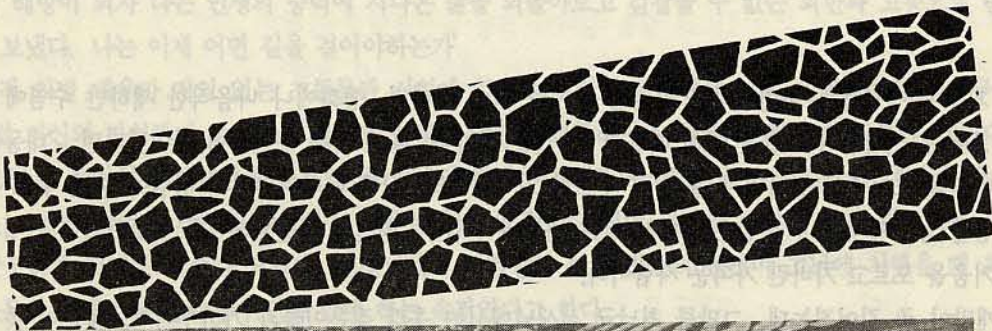
발행일/1993. 10. 16.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전화 (02) 763-2606, 745-5604



이 사진은 매주 목요일 오후2시-3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는
민가협 어머님들의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석방을 위한 목요집회'를 담은 것입니다.

탄백, 그 이후의 빛나는 삶

편집부

장 기수 선생님들과 한번이라도 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다면, 동화에나 나옴직한 새하얀 수염에 파안대 소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다면, ‘대동놀이 시간에 마술을 보여주신 할아버지’를 병실 웃으며 기억하리라. 산행에 따라와서 선생님이 즐겨 부르시는 “들고서 짹짹 놓고서 짹짹 / 말같은 시약시 잘도 짜누나”(-길주. 명천의 베를노래-)를 못들었다면 산행의 또다른 즐거움을 모르고 가버린 가여운 사람이다.

소개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만큼 최남규 선생님께서는 우리 젊은이들과 가까우시며, 젊은이 못지 않은 열정과 건강으로 만남의 장에는 빠짐 없으시다는 말이다. 언제나 환한 웃음을 얼굴 가득 띄우고 계신 선생님을 보면 저분이 정말 30년의 옥고를 치루신 분인지 의아스럽다. 모시 두루마기 필력이며 묵향 풍기는 한량처럼 세월을 보낸 분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는 이의 선입견일 뿐 15년의 수형생활을 마친 뒤에도 사회안전법에 의해 또다시 15년을 15척 담장 안 0.75평 독방에서 ‘매운 계절의 채찍을 감당하신 강인한 분이다. 더욱이 종이와 연필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향을 강요받다 테러를 당해 죽어간 동지, 지조와 신념을 지키다 이름없이 스러져간 동지들의 이름을 가슴속에 새겨 두었다가 석방 다음날 완전한 기록으로 남겨둔 모진(?) 분이다. 오로지 기억력에만 의존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인적사항부터 정역산 햇수, 죄명, 사인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기록하신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둠이 깃든 독방에 좌정한 채 동지들의 이름을 외우는 선생님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숙연해졌다. 말 그대로 가슴에 각인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병인 심장병과 고혈압으로 정신이 혼미해 질 때는 몇번이고 다시 되뇌는 일이 14년 동안 지속된 것이다. 언젠가는 살아남은 자의 증언이 세상의 빛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던들, 동지를 내뿜처럼 아끼는 동지애가 없었던들 가능한 일이었을까?

선생님께서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에 자술한 글을 보면서 우리는 새삼스레 인간 정신의 숭고함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차각된 능동성’이 얼마나 위대하나 꼼꼼히 생각해 보았다. 선생님께서 운동에 입문하신 과정이 여느 선생님들과는 좀 달랐기 때문이다. 복간도에서 해방을 맞이한 선생님께서는 당시 만주국 민정청 보건과 보건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장기수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소년 시절부터 반일투쟁의 경험이 있거나 민족해방투쟁에 투신하고 있던 것에 비해, 선생님은 일본이 만주에 세운 만주국의 고등관으

로 장년이 되어 있었으니 말이다. 그때의 심정을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다. '비록 민족을 반역한 일은 없으나 지식인으로서 시대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엄격한 거울에 비춰본다면 그것은 '친일'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해방이 되자 나는 인생의 중턱에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견잡을 수 없는 회한과 고통으로 번민의 나날을 보냈다. 나는 이제 어떤 길을 걸어야하는가'

민족적 차별 대우가 거의 없는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일본에 대한 반항의식의 돌파구를 찾으려했던 자신의 가치관이 잘못임을 깨닫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하였다. 해방 이후 만주국을 대신한 '민주정권'이 들어서자 선생님은 스스로 세 차례의 탄핵(자기비판)을 하면서 마음 깊숙히 '참회록'을 쓰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향을 강요하는 고문실에서, 모든 인간적인 권리를 빼앗긴 보안 감호소에서 선생님을 곳곳하게 지켜준 지주가 되었다. 선생님에게 비전향의 삶은 민족의 운명이 고난에 처했을 때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인텔리의 참회이며 민족 앞에 하는 속죄였다고 한다.

일제 때 독립운동하던 이들을 밀고, 고문하고 일제의 앞잡이로 철저히 친일의 길을 걸어간 진짜 친일 파들은 오히려 내가 애국자입네 희번덕거리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욕되지 않을까를 고민했던 선생님은 참말 순결한 양심과 고매한 용기의 소유자이다.

수유리 만남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조촐하게 꾸며놓은 선생님의 방이 참 인상적이었다. 한겨레 신문을 반듯하게 접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책꽂이에 책도 키순서대로 가지런히 꽂아 두셨다. 게다가 빈 상자 껍을 이용해 소지품 보관함으로 쓰고 계셨는데, 겉면에는 까만 매직으로 수진, 샤쓰, 뽀츠...라고 써놓으신 걸 보고 깔끔한 선생님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 웃음 지었다.

일상의 어지러움을 싫어하고, 매사에 청결한 것을 좋아하시는 선생님, 큰 뜻을 품고서도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세심함을 엿볼 수 있었다.

"허허. 후원회 소식지도 한호도 빠뜨리지 않았으니 혹 잃어버리거든 내게로 오시오.

"마침 우리가 선생님을 찾아뵈던 날은 수운회관과 한양대에서 각각 행사가 겹친 날이어서, 선생님과 함께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을 보러 서둘러 일어서야 했다. 언젠가 탕제원으로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때 사탕과 과자를 가져 두셨다가 우리들에게 내놓으시는 걸 보고 친할아버지를 대하는 착각마저 들었던 적이 있다. 스스로 '실패한 통일 일꾼'이라시는 선생님께서는 여든을 넘긴 춘추, 하얗게 센 백발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순수하고 어린 아이처럼 청정한 마음, 그러면서도 탄핵의 자기 채찍질을 가하는 외유내강의 활동가이다.

앞으로도 선생님께서 건강하셔서 (요즘에도 매일 새벽 약수터에 가셔서 물을 길어 오신다) 얼마 남지 않은 통일의 그날 "말같은 시악시 베풀만 짜누나"를 고향에서 부르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

최남규 선생님 살아온 길

- 1912. 4. 16 함경북도 명천군 출생
- 1913. 온가족이 두만강 얼음판을 건너 북간도로 이주
화룡현 삼도구 수동촌에서 황무지 개간
- 1923. 4. 충신시 명신소학교 입학
- 1929. 3. 중학진학을 반대하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120리 길을 걸어가 용정 영신중학교 입학
신문배달, 취사, 세탁, 화부 등으로 고학
- 1932. 만주국 국립 길림 사범대학 지리학과 입학
- 1937. 졸업, 연길 사범학교 교원
- 1938. 간도성 민정청 학무과 시학. 보건과 보건계장
- 1945. 탄백
- 1947. 고향으로 돌아옴
- 1948. 시학(장학관)으로 교육사업
- 1957. 국가보안법, 15년 선고
- 1973. 출소후 고물상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냄
- 1975. 7. 24 사회안전법으로 보안감호처분
- 1989. 청주 보안감호소 출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우황청심환

박 성 철(25세, (주)유공 근무)

나는 매일 섬으로 출근한다. 배는 타지 않는다. 대신 한겨울의 매서운 강바람이 몰아치는 대방교를 용감히 건너간다. -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낯선 강바람이라도 쐬지 않으면 도저히 간밤의 숙취가 깰 것 같지 않다.

남보다 조금 이른 출근, 화장실의 거울에 비친 내모습은 처참할 지경이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빨갛게 충혈된 두 눈, 꺼칠한 두볼, 풀어진 넥타이...

작년 겨울, 술 좋아하는 상사를 만난 덕에(?) 일주일에 2~3일은 어김없이 반복되던 '취중출근'의 모습이다.

대학 졸업장이 부끄러울 정도로 아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해야 할 건 '분명히' 많고, 게다가 저녁이면 어김없이 이어지는 술자리. 그야말로 사계절의 구분마저 사치스럽게만 여겨지던 작년 한해였다.

물이 허리쯤 차는 야트막한 풀에서 헤엄을 배워 난생 처음 깊은 곳까지 헤엄쳐 나왔다가는 문득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의 당혹감. 보란듯이 뽐낸 수영실력에 대한 으쓱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무리 까치발이나마 서보려해도 끝내 닿지않는 까마득한 심연의 공포에 비한다면 지나친 호들갑일까.

어쨌든 부서배치 6개월만에 내가 내린 결론은 신입사원의 그것치곤 좀 살벌한 것이었다. '이러다간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출퇴근용 손가방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우황청심환'을 챙겼다.

쉴쉴했다. 나름대로 적잖은 고민 끝에 사회진출을 결정한 것에 비하면, 고작 연속되는 과음으로 인한 숙취정도가 내가 부딪친 첫번째 난관이라니.

어느새 입사한지도 이년이 다 되어간다. 물론 그간 '우황청심환'을 사용할 기회는 없었다. 지난 이년은 어쩌면 내가 살아온 날 중 가장 웅골찬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받고 반성하는 순환사이클이 가장 빠르게 회전한 시간이었고, 다양한 부류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전국 곳곳을 유감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또한 많은 것을 배웠다. 맡겨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난생 처음 나 이외의 '다른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제 감정조차 주체할 수 없는 형편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까지 제어해야 할 필요성도 느꼈다. - 내 평소의 행태에 비하면 대단한 변화다. 한마디로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수확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더 깊어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족하다.

이야기가 많이 옆길로 섰다. 늦기전에 덧붙이면 우리 회사는 원유를 수입, 가공하여 석유류 및 관련 석

최남규 선생님 살아온 길

1912. 4. 16

1913

홍익대학교

최남규 선생의 삶과 문학

유화학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이곳에서 내가 하는 일은 엘피지 충전소와 산업체의 엘피지 시설에 대한 공사와 안전관련 업무이다. 고압가스인 엘피지는 위험물로 취급되다보니 온갖 법규의 규제를 받게 되고, 종종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애를 먹기도 한다.

처음 이 글을 부탁받고는 참으로 난감했다. 우선 급한대로 이제까지 모아둔 후원회 소식지의 같은 난에 실린 글들을 모조리 읽었다. 두번씩. 그리고 후회했다. 간사님의 부탁을 좀더 매몰차게 뿌리치지 못했던 것을.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글들은 모두 자신의 일터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앞으로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비해 좌충우돌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게 대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없는 얘기를 꾸며 쓰기는 더욱 싫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있는 일이 행복한 일치를 이룬 사람을 제일 부러워한다. 하지만 지금도 회사생활은 '악바리'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한다. 작년에 우황청심환을 챙기면서 한 '자신의 결정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약속을 잊지않기 때문이다.

지난번 여름 수련회 이후로 나는 작은 정성을 모으는 '후원회원'에서 후원회의 '수혜자'로 전락했다. 행복한 추락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좀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렇다.



끈질기게 피어나는 민들레로 살아

편집부

민들레.

동네를 빙빙 돌다가 겨우 집을 찾아온 편집부 식구들을 반갑게 맞아주셨던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 김옥순님의 첫인상이었다. 마침 추석 전날이라 더욱 방문이 반가우셨던 어머니는, 요즘 기도를 드리며 지난 생을 차분히 곱씹고 있다고 하셨다. 그 래, 지난 삶이 어떠셨냐고 여쭙니, 뭘 재미진 얘기가 있겠느냐 하면서도 다부진 말씀을 이으셨다.

“암것도 없는 집에 사람 하나 보고 시집을 갖 재. 원래 친정이 부유했던지라 처음엔 고생도 많았 구만.”

전남 고흥이 고향이신 어머니는, 인근 마을로 시집을 갔다. 살림은 힘겨워도 성실하기로 소문이 난 남편과 함께 2남 3녀의 자녀들을 키우며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았다. 남편의 그늘에서 세상의 풍파를 헤치며 6.25까지 무사히 지내고 이제는 좀 안정이 되려나 하던 차에 급작스런 남편의 죽음을 맞았다. (어머니 37세, 박노해 시인이 6살 때의 일이었다)

“그나마 쥐고 있던 논, 밭까지 팔아서 빚잔치를 했재. 그때 일로 빚이라면 치를 떨었재. 애들에게 도 남 것은 암만 좋아도 다 똥으로 보고 다녀라 신 신당부를 했응께.”

갑자기 닳친 남편의 죽음에 후유증도 컸지만, 평소 동네 일을 도맡아 해결해주던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기에 한탄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

었다.

“친정의 도움으로 땅 몇마지기를 얻었재. 판전 몰라도 자식들 공부는 시켜야 했응께. 남들은 욕도 많이 했을 것이여. 뭇도 없는 집에서 공짜로 공부 시키겠다는 주변학교 마다하고 모두 대쳐로 공부를 보냈응께. 애비없는 설움 모르게 하려는 오기였던 게지.”

남에게 손가락질은 받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려던 자식들은 오히려 착하고 인사성 밝다고 칭찬 들으며 컸다고 한다. 암전하고 성실했던 박노해 시인이 상이란 상은 도맡아 타와, 벽에 도배를 할 정도 여도, ‘장한 어머니’ 상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도 가보지 못했다고 한다. 남에게 빚지지 않고 5형제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일손을 늦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2년간 내리 한해가 들어 농사를 모두 망치게 되었다. 생각 끝에 두팔 건어 부치고 서울에 홀로 상경하여 다라 하나 얻어 들고 채소장사를 시작했다. 소문을 듣고 찾아간, 기둥만 몇개 남은 창신동 철거촌에 천막을 치고 기거하면서 채소장사, 아이스크림 장사, 홍합 장사를 번갈아 하며 2년을 보냈다.

“어느 헐개, 방학 때 처음 서울에 올라온 박 시인과 막내딸이 장사를 곧잘 도왔지. 장사하다 생긴 가슴앓이로 고생하는 날보고는, 고모집에서 미역을 얻어와 나를 대접하지 않겠나. 그 미역국을 받

이날 토의를 끝낸 박시인 박시인 박시인

아 들고 보니 가슴이 찡찡하다. 그래도 어찌겠소. 장사 그만 두고 함께 살자고 울며 떼쓰는 자식들을 모질게 내려 보냈재.”

그런 억척으로 기어이 5형제를 모두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했지만, 몸돌볼 틈없이 정신없이 살아온 세월은 결국 병이 되어 남았다. “고혈압에, 간 수술에, 병원서 2년간을 치료받고도 모자라 수술을 했재. 몸은 힘들어도, 자식들 고등학교 마치게 하고 나니 모든 것이 만족스럽더구먼. 남 열 자식 유학보내는게 안부러웠으니. 그래도 박 시인이 재판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며 후회도 났지. 저런 얘기들을 어떻게 다 머릿속에 넣었다냐 싶고, 저런 자식 공부 더 시켰음 얼마나 좋았을꼬 생각도 들고.”



그 아들뒤에 그 어머니가 있다고 했던가. 식구들 모두 모여 살았던 82년도부터는 안양으로 김장사를 다니셨는데 밭에 일하는 아낙네들에게 노래도 부르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곧잘하여 인기가 좋으셨단다.

“김을 사, 김을 사요. 전라도라 목포, 해남 완도 김을 사시오. 충청도라 대천에 조선 김을 사시오. 아이구야 살듯 말듯 일천간장 다 녹이네.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마쇼. 이 돈을 갖다 논을 사냐, 밭을 사냐. 논도 밭도 나야 싫다.”

얘기만 들어도 눈에 선한 고생길이었지만 어머

니는 절대 고생이 아니었노라 손 내저으신다. 김장사로 다니는 먼길을 사람들 속에서 흥을 돋구며 이겨내셨듯이, 고생을 고생이 아니라 여기며 살아오셨던 것이다. 박시인의 기나긴 수배생활 동안, 죽었다느니, 잡혀서 모진 고생을 한다느니 하는 여러 소문에 밤잠을 설치며 시달리다가, 지금은 오히려 어디에 있는지를 아니까, 마음은 편하다는 말씀속에서도 어머니의 지난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박노해 시인은 현재 경주 교도소에서 수감중이다. 옥중에서 보낸 글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또한번의 참된 시작을 위해 뼈아픈 각성속에서 새롭게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말하면 어찌 들을란지 모르겠소. 사실 박시인이야 할말 다하고 할 일 다하고 수감된 거지만, 채 피지도 못한 학생들이나, 수십년간을 그 지독한 곳에서 지내고 있는 장기수선생님들은 얼마나 한스럽다요. 그런 분들 다 나오고 그 뒤에 우리 시인이 나온다면 더 좋겠구먼. 암만 그리 돼야지.”

5형제중 큰 아들, 막내딸은 신부와 수녀가 되었고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민중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모두 공인으로 키우신 셈이다. 그 어머니가 이제는 모든 양심수의 어머니로 살아가시게 된 것이다. 그 어머니들의 민들레와 같은 억

양심수 석방을 위한 집회

세고 질긴 삶과 사랑이 있었기에 모진 시련이 몰아
쳐도 우리들의 참된 시작은 언제나 계속될 것이리
라. 훈훈한 마음으로 떠나는 동네어귀에서 어머님
의 말씀이 가슴에 남았다.

“큰 아들과 막내딸을 주님께 바쳤고,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민중에 바쳤으니, 내 앞이야, 삼사월
바람 빠진 무우처럼 허전하다해도 기쁨이고 영광
이지요.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되고 힘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웃는 세상이 오길 기도할
뿐입니다.”



민가협 어머님들과 함께 양심수 석방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옥순어머님(맨 오른쪽)

가슴에 벅차오는 일체감

오 승 규 (29세, 한의사)

노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에게 도시 생활은 초록색에 대한 갈증을 준다. 올5월 인천 계산동에서 한의원 개업한 뒤론 더욱 그렇다. 전에 살던 대전이나 용인에 비해보면 녹지도 적고 야외로 통하는 교통도 그리 좋지 않다. 그래서인지 처음 가보는 도봉산은 참 신선하고 상쾌했다.

동행한 아내도 임신, 출산 이후의 첫 야외 나들이에 들떠 있었다. 회원들은 밝게 웃으며 맞이해주었고 김밥과 음료수를 준비하고 길을 올랐다.

장기수 선생님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산을 잘 오르셨다. 옛 산중 시절을 회상하시는 걸까. 당당해 보였다. 산행, 점심식사, 전체 놀이시간... 그러면서 회원들은 타인에서 조금씩 벗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함께 피땀흘리며 민주대열에 섰던 벗들이 아니던가. 작은 차이로 분열했던 과거를 되풀이 않고 하나로 굳게 모여야한다.

오르는 길은 다소 위험했다. 모 스포츠 음료사에서 주관하는 산중 마라톤 탓으로 내려 달려오는 주자들과 이슬이슬하게 비켜가야했다. 산길이라는 것은 조금만 방심해도 늘 위험이 뛰어 나온다. 그러나 어디 산길 뿐이라... 사회, 정치적 삶 또한 주어진 현실을 냉정히 읽고 명확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혼동과 피동의 세계로 굴러 떨어지고 만다.

요즘의 러시아 보수, 혁신 세력의 대결도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스탈린의 민중에 대한 전체적인 유린이 소비에트 민중정권의 파행화를 불렀고 그것이 체 청산되기도 전에 친서방 급진개혁파의 독세와 오늘날 엘친의 의사당 군사행동에 이르고 말았다. 오늘날 이데올로기 대결의 시대는 왔다고 한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놓고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주도권 다툼은 어떠한 혼란속에서도 민중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민중의 국회의사당이 중무장탱크에 의해 함락되고 수백명이 사살되는 와중에 방관자처럼 지켜보는 대다수 러시아 민중은 자신의 주권을 찾기위해 수십배 더비싼 댓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땅에서 핵무기 보유여부와 핵전쟁 연습등 우리민족의 자주와 생존이 걸린 중대 사안에 대해 민중이 침묵하거나 혼돈속에 머무른다면, 또한 해고 노동자들과 양심수들의 권리회복 없이 진행되는 민주화의 거품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묶어내고 단련하기를 게을리한다면 우린 언젠가 또 값비싼 피눈물을 흘려야할지 모른다. 역사의 길은 도봉산길보다도 훨씬 더 길고 가파르다. 마라톤 주자들도 훨씬 더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산행처럼 남녀노소 하나되어 대오를 굳게 지켜 나아간다면 우리 손과 발로 보다 나은 역사의 산길을 헤쳐갈 수 있으리라.

이러한 불행공동체

산행후엔 경희대에서 벌어진 서노문협 주최의 노동자 문화의 꽃이라 할 「꽃다지」 공연을 보았다. 해고 노동자들의 복지투쟁 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공연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피날레에서 민중가요에 맞춰 수천명이 함께 춤을 출때 가슴에 벅차오던 일체감은 내게 자신감을 주었다. 사회진출 후 돈의 위력과 매력에 시달리던 내겐 값진 감동이었다. 그러나 그 감동은 곧바로 시련을 맞고 말았다. 공연장 옆 민미협 전시장에서 산 인물화 때문에 난 아내의 질책을 들어야 했던 것이다. 결국 감동은 짧고 현실은 냉혹했지만 나는 그 날 하루 진지한 삶을 살았고 즐거웠다.

장기수 선생님들, 간사님들, 회원님들, 그리고 양심수후원회. 앞으로 모두다 좋아질 것 같다.



다일공동체를 위하여

신 동 남 (현대교회 성도)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날 12명의 여선교 회원은 목사님을 모시고 전농동에 있는 다일공동체를 방문하였다. 다일공동체는 여러해 전에 우리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시던 최일도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생활공동체다. 다일공동체라는 이름은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말의 줄임형이다. 청량리역과 시장 주변에 있는 무의탁 행려자, 노숙자 등 소외된 이들을 섬기며(점심식사 제공, 무료이발, 의복제공, 의복세탁 등) 흔히 청량리 588이라 불리는 곳의 윤락여성, 포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에 출입하는 미성년자들을 보호 선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무료 진료도 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250명 정도의 점심제공을 돕는 일이었다. 교회에서 같이 출발해서 10시가 조금 지나서 도착하였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글귀가 크게 붙어 있었고, 마당에 큰 솔이 여러개 보였다. “교회개신은 설것이부터”라는 것도 걸려 있었다. 한옥집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넓지않은 공간을 규모있게 이용하고 있었다. 벽에는 다일공동체의 영성생활, 하고 있는 일등을 알 수 있는 여러가지 글, 그림 등이 걸려 있었다. 날짜 밑에 봉사할 교회, 단체들의 이름이 뿔뿔히 써있는 달력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최목사님을 도와서 일하시는 여러분이 계셨다. 간단한 인사와 소개, 기도가 있는 후에 곧바로 음식준비가 시작되었다. 한쪽에서는 오이를 씻고, 고추를 다듬고, 맛있고 정갈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다. 물소리, 도마소리가 경쾌하게 계속되고 간간히 터지는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잔치집 같았다. 쌀밥, 미역국, 멸치고추조림, 오징어젓무침, 오이 무침이 마련되었다. 12시 정각에 다일공동체 식구와 우리들 외에 세명의 포주가 밥상공동체에 초대되었다. 매일 세명씩 초대하시는데 처음에는 외면했지만 지금은 좋아졌다고 하셨다. 특별한 손님이 있었는데 6~7명의 어린이들이 두명의 교회 선생님과 정성껏 모은 성미를 갖고와서 나눔을 실천하고, 섬김의 현장을 직접 보러 온 것이었다. 이땅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는 기도를 드린 후에 바빠 식사를 마치고 “오병이어 거리”의 섬김을 위해 준비했다. 남자분들이 수레에 밥과 반찬을 싣고 앞서 가시고 우리는 뒤따라서 좁은 골목을 빠져 나온 후 처음 보는 광경에 말문을 닫았다. 계속 내리는 비로 쓰고 있는 우산속에 우리를 감추면서 살짝살짝 유리벽 안에 있는 마네킹이 아닌 윤락여성들을 보았다. 비가 와서인지, 대낮이기 때문인지 집집이 모두 그들이 앉아 있지는 않았다. 집은 거의 똑같은 크기에 구조도 비슷했다. 그녀들은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뒤에는 예쁜 핑크빛 계열의

커튼이 쳐져있고 옆벽에는 가스 난로가 붙어 있었다. 사람이 물건처럼 쇼윈도에 전시되어 있는 거리를 보고 정말 가슴이 조여움을 느꼈고, 하나님! 하고 속으로 불러 보는 것 외에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다. 24살이면 환갑이라는 설명이었다. 그 거리의 손님들은 주로 청소년들이라니 어린 소년 소녀들의 매춘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잠시후 우리들은 오병이어의 거리에 갈 수 있었다. 굴다리에 대형벽화와 오병이어의 거리라는 큰 글씨가 있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아니 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시 정각에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다. 기도 내용은 자동차 소리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고, 맛있게 드시라는 사랑의 소리가 언뜻 들려왔다. 일일이 그들을 살펴보는 못했으나 질서있게 차례대로 밥을 잘 타갔다. 두번 세번 오는 이가 여럿 있었다. 비닐 봉투에 밥과 반찬을 담아가기도 했다. 병든 할머니가 집에 있을까, 아니면 저녁에 먹기 위함일까? 아무튼 하루에 점심 한끼로 지내는 이가 많다는 설명이 있었다. 비교적 입성은 깨끗한 편이었다. 60년대에 보았던 누더기 차림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내앞에서 반찬을 담으시던 목사님 사모님이 눈물을 참느라 애쓰시었고, 나는 그들이 그 모습을 볼까봐 또 내 눈물을 참느라 입을 굳게 다물었다.

쭈그리고 앉아서 먹어야 하는 그들을 안타까워 하시는 최목사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모르리라! 추운 겨울날 밖에서 밥을 먹는 그들을 안타까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모르리라! 자동차 소리 때문에 기도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을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모르리라!

다일공동체에서 꼭 필요로 하고 있는 '섬김의 집'이 속히 마련되어서 그들의 잠자리가 해결되고, 아플 때 쉴 수 있고, 조용히 목사님의 하나님 얘기와 기도를 듣고, 또 그들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



자랑스런 후원회원 여러분.

대지는 넉넉하고 하늘은 푸르디 푸른 가을입니다. 그러나 감옥안의
'갇힌 자유인'은 가을의 맛을 알기전에 추운 겨울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편지 한통은 겨울을 예비하는 든든한 힘이 될것입니다.

1. 정 영 선생님(대구 3236)/1941. 2. 25 (54세)/1983. 9. 13 구속/무기형, 11년 복역.

서해 미법도 어부. 농사를 하면서 부업으로 어로 작업을 하다가 65년 강화해안에서 북한군에 의하여 납치되었다. 북한 체류 22일. 그후 인천제철에서 노동을 하던중 1983년 9월 13일 안기부에 연행되어 40일간 불법 감금 과정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 부인도 10일간 고문수사를 받기도 했다. 수사기관에서는 정영 선생을 남파간첩 정진구(정영의 7촌 아저씨)의 하부조직원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본인은 만나본 적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지조차도 모른다고 한다.

2. 조 상 록 선생님(대구 3204)/1946. 3. 9 (48세)/78년 구속/ 무기형, 15년 복역.

65년 경희대 법대 입학, 2년 중퇴후 군복무를 맞추고 가발생산업에 종사하다가 73년 9대 국회의원 선거에 순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낙선하기도 했다. 그후 원주대에 편입, 75년 졸업하고 76년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76년 10월 도일하여 조총련계 인물인 임 아무개와 알게되어 사상교육을 받고 한국 사정을 이야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 주 소 ●

대구교도소 : 경북 달성군 화원면 천내동 472번지 (711-830)



가난을 쪼갬을 아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영치금은 잘 받았습니다. 다른곳도 아닌 먼가협에서 영치금을 보내올 때면 으레히 책을 사서 봤습니다. 너무들 고생하셔서 보내주시는 돈이라 먹고픈 사과 한알 사 먹는다는 것도 저스러웠습니다. 요즘은 후원금도 예전같이 잘 들어오지 않아 어렵다는데 한숨만 나오는 후원금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어 대전이니 광주니 보내시느라..... 어떻게든 양심수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누고자 애쓰시는 모습,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기도 합니다. 저는 늘 먼가협에 대해 늘 큰 공지를 가지는 데 이인모 선생을 고향으로 보내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곳이 바로 먼가협이 아니었습니까? 가난을 쪼개 줄 아는 사람들. 쪼개 줄 나눌 줄 아는 사람들. 나누어 상대에게 따스한 체온이 되어주고 그래서 따뜻한 눈목이 사랑으로 번지는 그 세상! 이 세상을 맛들어 내고자 했던 사람들은 밧을 핑계삼아 혼자만의 배를 채우진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신문과 월간 [매]을 통해 접한지가 오래인데 이제야 성순희 어머니의 영전에 고개숙여 애도를 전합니다. 언제 어느때고 고통 당하는 자 속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매년 보내주시는 따스한 체온에 감사의 마음 뿐입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1993년 9월 9일 안동목에서

박영희 올림.

• 시인인 박영희 선생은 91년 10월 방북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시집으로 「해뜨는 검은땅」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9. 1 - 독일 토요기도회에서 성금 800마르크와 격려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9. 4 - 장기수 선생님들께 월간 [말]지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 회원 기획모임을 최진만 회원 댁에서 가졌습니다.
- 여름수련회에 대한 평가와 4/4분기(9-12월) 산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9. 5 - 주간 [내일] 신문 창간총회가 서강대에서 있었습니다.
9. 6 - 민족민주열사 범국민 추모사업회준비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가협)
9. 7 - [후원회 소식] 23호 편집회의가 있었습니다.
- 극단 '열린무대' 초청 공연 (완전한 만남)을 관람했습니다.
 - '6공 정치수배 완전해제를 위한 촉구대회' 가 있었습니다. (연세대)
9. 8 - 민가협 간사들이 낙성대 집에 계신 이종환, 조창손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 광주교대 4학년에 재학중이던 이경동 군이 '참교육 실현과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분신했습니다.
9. 9 - 이태영 선생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 9.10 - 민가협 9월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 전 반핵평화 운동연합 간사 김삼석씨와 여동생 김은주씨 연행사건과 관련해, 가족들과 민가협 어머니들이 안기부에 면회를 요청하며 항의를 했습니다.
 - 조국, 황주석씨 등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 9.11 - 김영자 님 빈소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 9.13 - 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 9.16 - 민가협 '민주가족의 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 9.17 - 자민통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순씨의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 9.18 - 소식지 23호를 발송했습니다.
- 유가협과 유가협 후원회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 9.19 - 9월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10시, 도봉산, 41명 참가)
- 9.22 - 양심수 80명에게 영치금을 발송했습니다. (각 1만원씩)
- 장기수 선생님들께 월간 [말]지를 발송했습니다.
- 9.23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목요집회' 가 있었습니다. (2시, 탑골공원)
- 미국 수도장로교회에서 장기수 선생님들께 띄우는 편지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정성스럽게 써보내주신 편지들을
교도소로 발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 기획모임이 있었습니다.

9.25 -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어머니, 보고싶은 나의 어머니] 공연이 있었습니다.

- 홍전영 회원과 수유리 최남규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9.27 - 장기수 가족협의회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20만원)

9.28 - 출소장기수 선생님들께 생활지원을 해드렸습니다.

9.29 - 박노해 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광 고

1. 민가협에서 매주마다 목요집회를 개최합니다.

민가협은 9월 23일(목)부터 12월 23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3시,

답골공원 앞에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엽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주제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주제〉

10월 7일 : 43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

14일 : 서울대 대동제에서 민가협 「장터」가 있습니다.

21일 : 6공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집회

28일 : 조작간첩 석방과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

11월 4일 : 학생 양심수 석방을 위한 집회

11일 : 노동자, 농민 양심수를 위한 집회

18일 : 사상, 양심의 자유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집회

25일 : 양심수 석방을 위한 추공연

12월 2일 : 양심선언 군인, 전경 양심수 석방을 위한 집회

9일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집회

16일 :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거리 음악제

23일 :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집회

2. 전 양심수후원회 간사 노태훈씨 재판소식

지난 10월 6일(수) 425호 법정에서 노태훈씨의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2년 구형을 받았으며, 선고일은 10월 20일(수) 오후 2시 425호 법정에서 있습니다.

3. 축 홍전영 회원 결혼

우리 후원회의 오랜 일꾼인 홍전영 회원이 강정구 회원과 새로운 걸음을 시작합니다. 함께 오셔서 두분의 앞길을 축복해 주세요!

일 시 : 1993년 11월 13일

장 소 : 여의도 교원 공제회관

10월 산행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마음과 몸을 활짝 열고 산내음을 들이키는 우리들 가슴에는 언제나 새기운이 넘쳐납니다. 한달동안 보지 못했던 그리운 사람들과 마주하며 가을의 넉넉함 속에서 대동의 한마당을 가져봅시다!!”

▶언 제 : 10월 17일 (일) 오전 10시 정각

▶어 디 로 : 수락산

▶모이는곳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매표소 앞

▶준 비 물 : 각자의 도시락을 여유있게 회비 3000원

9월에 구속된 양심수

1. 권혁명 (대경총련 의장)

2. 김삼석 (전 반핵평화운동연합 간사)

3. 김은주 (통역인)

4. 김대영 (의경)

■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① 양심수 석방사업 적구지원
- ② 장기복역 양심수 후원사업 (정기적 영치금 발송, 책자, 편지, 영치품 지원)
- ③ 일반 시국 양심수 후원사업 (비정기적 영치금 발송)
- ④ 석방된 장기복역 양심수의 생계지원, 생계터전 마련사업
(수유리 '만남의 집' 과 낙성대 '만남의 집' 운영)
- ⑤ 장기복역 양심수, 석방자 중 무의탁자와 자매결연 추진

☐ 이용하실 송금구좌 ☐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택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 양심수후원)
농협	053-01-112692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 소식

보내는 이: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110-542)

받는 이: